

2026 대비 행정쟁송법(손승주) GS-2 8주차 모의고사 review

※ 수험 공부에 관하여

오늘이 벌써 GS-2기의 마지막 회차입니다. 지금까지 매주 첨삭된 답안을 가져갔다가 복습하고, 또 다시 다음 회차를 준비해 오신 그 시간들은 이미 여러분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해 나아가다 보면 막바지에는 스스로 달라진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 변화는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나만 빼고 다들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자주 옵니다. 그러나 여러 답안을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는 사람은 드뭅니다. 결국 이기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 중 누군가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그 드문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 쟁점이 복수인 경우

2문처럼 하나의 사실관계 세 가지를 묻는 문제에서는 세 논점에 시간을 고르게 나누었느냐(즉 균형감 있게 모든 문제를 서술했느냐)에서 점수가 갈립니다. 첫 논점에 욕심을 내다 마지막 논점을 허술하게 작성하면 알면서도 못 받는 점수가 생깁니다. 또 논점들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논점별로 나누어서 <논점-이론-적용 및 결론>을 서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형식은 내용보다 빨리 익으니 남은 기간에 틀부터 단단히 잡아 둡시다.

※ 모의시험 피드백

1. 1문

1) 기속력 일반론은 대부분 잘 쓰셨으나, 논점의 정리에서 ‘인용판결 확정 이후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라는 키워드를 빠뜨려 처분사유 추가·변경 논점인지 기속력 논점인지 흐릿해진 답안이 있었습니다. 기속력 논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논점의 정리에서 은근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 기속력의 법적 성질과 위반의 효과(판례와 다수설: 당연무효)를 누락하거나, 시간적 범위를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잘못 적은 답안도 상당히 있었으니, 처분 시 기준임을 정확히 기억해 둡시다.

2) 가장 아쉬웠던 지점은 사안의 적용에서 언급되는 판례입니다. 정보공개법 내 각각의 비공개 사유는 그 취지가 서로 달라, 비공개 사유의 근거 규정이 달라지면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로 본다는 판례를, 단순히 “조항이 다르므로 동일성이 없다”로 정도로 뭉개는(?) 답안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니, 각 조항의 내용과 취지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동일성을 부정한 답안이 확연히 돋보였습니다.

2. 2문

1) 부당이득반환청구(2-1물음)는 처분의 ‘효력’이 선결문제인 경우가 쟁점인데, 논점의 정리와 포섭에서 ‘공정력’ 키워드를 놓친 답안이 많았습니다.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공정력에 따라 유효하게 통용되므로 乙이 2천만 원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흐름으로 ‘법률상 원인 없음’이라는 부당이득 요건과 공정력을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2) 취소판결 가부(2-2물음)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을 먼저 논한 뒤 단순 취소사유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처리로 단계적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철칙 : 쓸지 말지 망설여 진다면 조금이라도 쓴다). 물론 甲이 제기한 것이 무효확인소송이기 때문에 의의도 빠뜨리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판례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은 이상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는 문구와 ‘소변경 없이’ 취소판결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누락한 답안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판례는 완벽하게 외우지 못했을 때는 요지만 써도 되겠지만, 가능한 있는 그럴싸하게 현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적용에서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구비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갖춘 경우와 못 갖춘 경우를 가정법으로 나누어 풀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3) 사정판결 가부(2-3물음)는 대체로 잘 쓰셨으나, ‘무효확인소송에는 사정판결 준용규정이 없다’ 내지는 ‘존치 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다’는 문구를 명확히 적지 않고 뭉개 쓴 답안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부정설과 판례는 결론은 같으나 근거를 달리한다는 점(부정설은 법치주의의 예외, 판례는 존치시킬 효력 없음)을 좀 더 드러나게 서술해 주면 좋겠습니다.

4. 결

그 동안의 답안지를 한자리에 모아, 매번 짚어본 나의 약점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스스로 짚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해주는 것보다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것보다 가진 것을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보다 더 드문 끝까지 해내는 독한 사람, 그 드문 독한 사람으로 시험장에 앉아 계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